

초등 무상급식·학원심야교습제한 3개월

올들어 광주·전남지역 교육계에서는 변화의 전기가 될 양대 정책이 본격 시행됐다. 광주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오르는데 이어 전남교육청은 무상급식 학교를 1000여곳으로 크게 늘렸다. 양 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묶었다. 광주일보에는 시행 3개월에 맞춰 초등학교 급식 현장과 학원 교습 실태를 점검했다. ▶ 관련기사 3면

“점심시간 모두가 즐거워요”

“급식비 상처는 옛 말”...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만족

“급식이 맛있어서 평소에도 음식을 거의 남기지 않아요. 몸에 좋은 음식이 자주 나오니 점심시간이 기다려져요”(광주 봉선초 6학년 김지은양) 2일 낮 12시2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초등학교 급식실, 점심시간이 되자 5~6학년 학생부터 식사를 하기 위해 담임 교사의 인솔에 따라 차례로 들어와 줄을 섰다. 매주 한 차례 있는 ‘채식의 날’인 이날 메뉴는 흰쌀밥과 열거리된장국, 생선 커트릿, 목 무침, 배추김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웠다. 점심시간 내내 학생들은 하나같이 즐거워 표정이었다. 정승우(13)군은 “고기반찬이 없어서 아쉽지만, 좋아하는 메뉴가 나올 때가 훨씬 많다”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아요”라고 전했다. 5~6학년 학생들의 식사가 마무리

될 때쯤 1~2학년, 3~4학년 학생들이 이 식사를 하기 위해 급식실로 모여 들었다. 광주지역 전체 초등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 지난 3월 이후 봉선초 학생과 교사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던 일부 학부모들 역시 막상 정책이 시행되자 긍정적인 반응이다. 봉선초의 경우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전까지 급식비를 지원받던 학생은 1~6학년 전체 750여명 가운데 25% 가량인 200여명이었다. 급식비 미납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쉽사리 급식비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급식비 지원을 받던 일부

고학년 학생들은 친구들이 알게 될까 봐 급식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재료비 1600원에 친환경 식단 지원금 200원 등 학생 1인당 2000원이 넘는 무상급식 혜택을 모든 학생들이 받게 되면서 이런 모습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가끔 학교에서 학생들과 식사를 하는 학부모도 운영위원들은 ‘항상 반찬이 이렇게 잘 나오느냐’며 어리둥절해 하기도 한다. 봉선초 장덕희(여·48) 영양교사는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교육계의 엄청난 변화로 아이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상처를 받던 모습은 이제 옛말이 됐다”며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식단의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지원을 늘려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초기기자 kimcho@kwangju.co.kr



2일 낮 광주시 남구 봉선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어린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점심을 먹고 있다. ‘채식의 날’인 이날 메뉴는 흰쌀밥과 열거리된장국, 생선 커트릿, 목 무침, 배추김치 등으로 학생들은 대부분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웠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저비용 항공사 설립 잔걸음

무안공항 활성화 조치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저비용 항공사’ 설립을 위한 전남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전남도는 2일 한서대 산학협력단에 의해 ‘저비용 항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항공 수요가 없어 ‘무늬만 국제공항’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다, 정부의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검토 등으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전남도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남권 항공운송산업의 수요를 예측한 뒤 ▲저비용 항공사 운영 필요성 ▲저비용 항공사 설립 타당성·경제성·과급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또 ▲무안공항의 운영 실태를 검증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저비용 항공사 출자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저비용 항공사는 기내식 제공이

나 소화물 탑재 등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운임을 기존 항공사의 70~80%로 낮춘 항공사로, 부산, 군산, 제주 등 국내 자치단체도 에어부산, 이스타항공(군산), 제주항공 등에 10억~50억원 안팎의 지분을 출자해 참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는 만큼 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

실하다는 입장이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가 항공사 설립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인근 시·군이 취항 항공사에 재정 지원금을 주고 에어택시(소형 항공기)까지 취항했다 해도 무안공항의 활성화가 더딘 상황에서 저가 항공사를 설립할 경우 또다시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학원가 불빛 막고 심야 수업

오피스텔 ‘과외방’ 교습도... “규제 강화가 음성화 부추겨”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 교습이 금지됐지만 광주지역 일부 학원가에서는 ‘밀실수업’이 성행하고 있었다. 지난 1일 밤 10시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학원가 주위에는 학원들이 나서 학생들로 붐볐다. 심야 교습이 밤 10시로 제한되면서 학원들은 일제히 불을 끄고 문을 굳게 잠갔다. 하지만 10여분이 지나자 학교 수업을 마친 고등학생들이 학원으로 들어섰다. 건물 밖에서 봤을 때 불이 모두 꺼져있었고, 복도로 통하는 불빛도 없었지만 문을 열어잠근 학원 안 교실에서는 10여명의 학생들이 둘러 기말고사에 대비한 수업을 받고 있었다. 이날 수업은 1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학원을 다니는 김모(16·광주 모

고교 1년)양은 “모의고사와 기말고사가 코앞이라 보충수업을 받기 위해 왔다”며 “우리 학원 말고도 밤 늦게 수업을 하는 학원이 많다”고 말했다. 2일 자정 무렵 한 무리의 학생들이 삼삼오오 또 다른 학원을 빠져나왔다. 교복을 입은 채 교재를 양손에 가득 들고 나온 학생들은 학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부모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자녀를 데리러 나온 박모(42)씨는 “법을 지켜야 하지만, 아이가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해 밤늦게라도 수업을 받고 싶다고 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학원 강사들은 심야 교습을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교습 시간 제한은 ‘학생과 학원을 모두 죄인으

로 만드는’ 제도라며 불만도 터뜨렸다. 학원강사 A씨는 “수업이 늦게 끝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심야 교습이 금지되자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주말에 한정됐다”며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는데 학원수업을 일주일이나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고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학원강사 B씨는 “일부 학원에서는 단속을 피해 밤 10시 이후 인근 오피스텔에 숙진 ‘과외방’을 차려 놓고 차량을 이용해 학생들을 데려가 따로 교습을 하고 있다”며 “교습 시간 규제강화가 되래 음성적인 교습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양승희기자 yang@kwangju.co.kr

달랑 1000원... ‘생색내기’ 통신비 인하

‘기본료 1000원 인하나 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휴대폰 사용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요금인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증으로 직장인들의 평균 이동통신요금 5만 원대를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인하폭

은 5%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기본료 1000원 인하와 함께 무료문자 50건을 제공,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했지만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넘어선 스마트폰의 경우 무료문자가 포함된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84%에 이르고, 이들 중 대다수가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는 ‘시늉만 인하’로 비춰지고 있다.

진보신당은 ‘고양이 눈물’이라며 방통위 방안을 질타했다. 박은지 부대변인은 “보통 대기업의 두 배인 15%의 영업이익률에도 영살을 부리는 통신업체와 짝퉁 대책만 부풀리는 방통위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국민은 쉽게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돌아붙였다. 누리꾼들 역시 “기름값 비싸다니 100원 내리고, 통신요금 비싸다니 1000원 내리나”, “1000원이나 인하해줘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 등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방통위가 이날 내놓은 정책방안에 따르면 우선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올 9월부터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함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은 1인당 연 2만8000원(4인 가구 기준 11만4000원)가량 내리게 된다. /임동철기자 exian@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현지 학생들과 수업하며 생생영어 배우요
새롭다, 즐겁다, 뉴질랜드 어학연수
광주일보가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한뉴문화교육센터(www.hannew.org.nz)와 공동으로 현지학생들과 수업을 받는 정통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특징 1 현지학교 매일 수업참여
기존 해외여행 연수가 아닌, 새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학교 교실에서 연수기간 내내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영어실력을 키운다. 연수생의 어학수준에 맞게 학년을 배치하며 오전엔 별도 영어교육도 실시한다.

특징 2 학생 집에서 매일 홈스테이
연수생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현지 학생들의 집을 선별해 연수기간내내 편만하

고 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갖는다. 교사가 주 1회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생활상황도 체크한다.

특징 3 연수생 안전에 만전
홈스테이 전담 선생님이 있어 연수생들이 현지 생활에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24시간 학생보호 시스템을 운영한다. 현지 학교 교직원과 한뉴문화교육센터 교직원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연수생들의 학교생활을 밀착 관리한다.

| 연수기간 | 2011년 7월 28일 ~ 8월 25일
| 연수학교 | Howick Intermediate School 등 4개교
| 연수대상 | 초등 4~6학년, 중학생 1~3학년
| 연수인원 | 선착순 40명
| 신청마감 | 2011년 6월 23일
| 문의 | 062-220-0641 · 019-268-3635

| 주 최 | 광주일보사 | 주 관 | 한뉴문화교육센터